

진정한 내란극복·갈라선 국민 대통합 급선무



3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에서 선거종사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6·3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한다.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 정부 4기'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사실상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지키라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통수권을 국민을 향해 겨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후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는 '정권 재창출'을 훨씬 앞섰다. 이같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염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행정부도 가져옴에 따라 입법과 행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총통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를 수용했다. 이는 입법과 행정 권한을 이재명 정부에게 부여해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다.

첫 번째는 '내란 극복'과 '민생 안정'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기도 한 '내란 극복'은 다시는 이 땅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 출범 의미와 과제

입법·행정 장악 막대한 권한 외교·안보 정책 조율 막중 미 보호무역·대북 관계도 난제

록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확실한 '내란 극복' 의지는 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기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상경제민생안전TF'를 구성해 민생과 통상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 등의 정책도 이재명 정부 앞에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트린 외교 안보 정책 조율도 이재명 정부 과제 중 하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외교 및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자주적인 외교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입법 기반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들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된 이재명 정부는 내란 극복과 민생 안정 등 수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며 "앞으로 5년간 국민들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이들 과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내정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낙점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유력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당연구원장이 낙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은 4일 중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인 4선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진명(진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난 뒤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고, 이번에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짙



김민석

지 않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이 당선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지내며 정책적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략 및 기획통으로 분류되며 오랜 시간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세 사람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

장에 내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대강의 틀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이었던 '7인회' 멤버 김병욱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민정수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낸 오희수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울=김현수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